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8월 1~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베트남 8월 경제 동향

- 미국, 베트남 상호관세율 46→20% 인하
 - 베트남 공상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포함해 68개국 및 유럽연합(EU)에 대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하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대로, 베트남의 대(對)미국 상호 관세율은 기존 46%에서 20%로 인하된다고 설명
- 베트남, 은행권 금리 안정화 조치 관리감독 강화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팜 민 쩌 총리 지시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을 달성을 위해 금리 안정화 대책 마련을 은행권에 지시
 - 중앙은행 지시에 따라 은행권은 예금금리를 안정화하고,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통화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대출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해야 하며, 운영비용 절감과 기술 적용 확대, 디지털 전환 및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현재 베트남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연 6%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리는 연 6.23%으로 0.7%p 하락
- 베트남 경제계, 수출시장 다변화 주력
 -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의 2025년 기업 신뢰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 대부분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세운 상태이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 기업은 전 세계 수입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87%의 해당하는 시장 여력을 확보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며, 미국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디리스크(위험 축소)을 위해 전 세계 60여개국이 참여 중인 17개 자유무역협정(FTA)과 70개국과 체결한 양자 무역 협력 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경제계에 권고

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또 럽 베트남 당서기장, 국민방한 (8.10.~13.)
 - 또 럽 서기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양국 관계 확대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두루 만나 현지사업에 대한 베트남정부의 지원 방침을 밝히고 투자확대 등을 요청할 예정
 -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국민 만찬을 통해 또 럽 서기장과 정치·안보·교역·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인프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미래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
- 베트남, 2027년 반도체 독자 생산 추진
 - 팜 민 쯔 베트남 총리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반도체 산업 발전 국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늦어도 2027년 핵심 반도체 칩의 독자적인 설계·제조·테스트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범정부적 관련 산업 개발에 나설 것을 각 정부 부처에 지시
 - 2030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에서 10개 부처에 할당된 38개 사업 및 과제 중 10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4개 사업 진행 중
 - 또한 베트남은 반도체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아 세계 반도체연맹(GSA) 파트너국 중 하나로 선정
- 한국전력공사-베트남, 원전 협력 확대
 - 한국전력공사는 베트남측의 요청으로 투자기획부(현 재정부에 통합) 수석차관 출신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회연구단을 서울로 초청해 원전협력 워크숍을 진행
 - 한전은 베트남정부의 신규 원전개발 사업 추진에 발맞춰 K-원전 건설·운영기술과 안전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한국이 최적의 원전사업 파트너임을 입증하는데 주력
 - 베트남 연구단은 K-원자력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에 기여한 성과를 비롯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인력양성, 인허가체계, 수용성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으며, 원전 도입 초기 단계의 정책 수립과 실무적용 경험에 대한 심도깊게 질의

3 베트남 기타 동향

- 팜 민 쩌 총리, 롱탄신공항 12월 운항을 위한 조속한 완공 촉구
 - 팜 민 쩌 베트남 총리는 롱탄국제공항 공사 현장 시찰에서 12월 19일 첫 운항에 나선 뒤 내년초 개항해 상업운항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완공할 것을 촉구
 - 팜 민 쩌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가속화를 지시한 것은 착공 이래 이번이 8번째이며, 이 밖에도 사회경제적 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공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공항 도시, 항공 산업 단지, 자유무역지역, 부지 주변 물류 허브 개발 등을 위한 연구 지속과 3할주로와 2단계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급 기관에 지시
- 베트남, 연내 호치민과 다낭에 국제금융센터 설립 추진
 - 베트남 IFC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팜 민 쩌 총리는 연내 호치민과 다낭에 IFC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액션 플랜 발표
 - 액션 플랜에 따르면, IFC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한 베트남이 사회경제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 중 하나로 중장기 재정 자원 유치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IFC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대적 경영 방식과 우수한 인력, 투명성, 체계적 협력, 금융기관, 그리고 주요 국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조화로운 특별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 베트남, 첫 자국 기업 운영 지상 광케이블 개통
 - 국영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에 따르면,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 싱가포르를 잇는 총길이 3900km 지상 케이블인 VSTN이 최근 구축돼 운영을 시작
 - 이는 해저 광케이블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인터넷 연결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베트남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첫 번째 국제 케이블

□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2호선(벤탄-탐르엉)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USD 20억 (VND 48조)
- (사업내용) 총 연장 11.2km(지하 9.2km, 지상 2km), 11개 역사(지하 9, 지상 1)
- (추진계획) '25.7. 부지정리 완료 / '25.12. FS 및 FEED 설계 컨설턴드 선정 예정 / '25.12. 착공 예정 / '30. 개통 목표

- (주요사항) 호치민 시내 중심부인 벤탄부터 편선넛 공항이 위치한 호치민 북동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종점 탐르엉역에서 편선넛 공항까지 4~5km 떨어져 있음(향후 환승 노선 건설·연결 예정)
 - 기존 독일 재건 은행(KfW) 차관 등을 활용한 ODA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공공투자자 자금 조달 구조 전환

② (베트남) 하노이시 메트로 2호선(남탕롱-쩐홍다오)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VND 35.6조 (USD 14억)
- (사업내용) 총 연장 11.5km(지하 8.9km, 지상 2.6km), 10개 역사(지하 7, 지상 3)
- (추진계획) '25.8. 부지정리 90% 완료 / '25.10. 착공 예정 / '30. 개통 목표

- (주요사항) 하노이 최초의 TOD 모델 적용 사업으로 차량기지(depot) 부지 인근은 역세권 중심의 주거·상업 복합개발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